

# 2017년 설 연휴 공장가동(영업) 및 상여금 지급실태 조사

---

2017. 01



# I. 조사의 개요

## 1. 조사목적 및 활용방법

- 수원지역 기업체의 설 연휴 공장 가동 현황 및 상여금 지급 실태를 매년 1회 조사하여, 지역 내 기업체 명절 연휴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코자 함.

## 2. 조사기간

- 기초자료조사 : 2017. 01. 03. - 01. 20.
- 자료정리 및 통계분석 : 01. 20.
- 보고서 작성 : 01. 23.

## 3. 조사대상

- 수원지역 소재 10인 이상 제조업체 64개 업체 응답

## 4. 조사방법

- FAX 및 이메일 조사

## II. 조사결과

### 1. 연휴 공장가동 계획

- 2017년 설 연휴를 맞이하여 수원지역 대부분의 기업체(93.2%)가 전체 휴무를 실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기업은 3.4%, 기타 응답이 3.4%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 또는 일부 가동하는 기업은 조사 응답 업체 중 6.8%로 전년대비 2.2%p 감소하며, 공장 가동보다는 전체 휴무를 택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어 경기침체로 공장가동 보다는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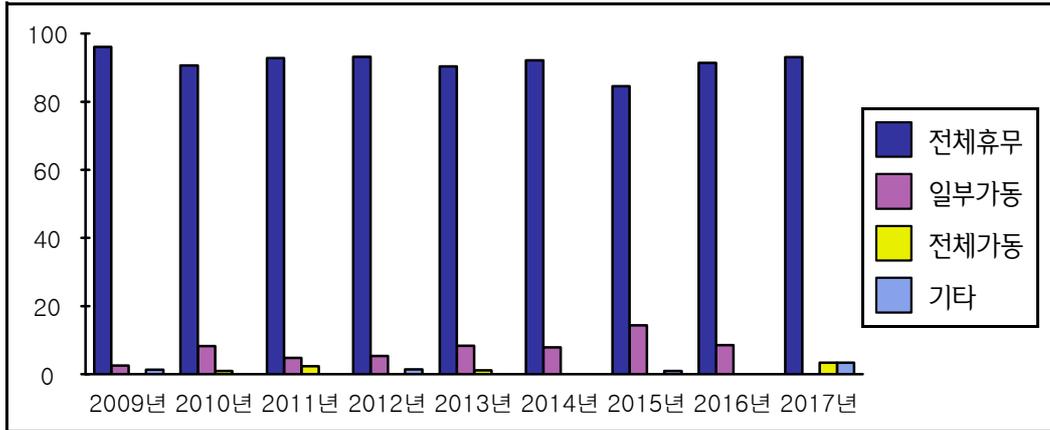
#### < 설 연휴 공장가동 계획 >

( 단위 : % )

구 분	전체휴무	일부 가동	전체 가동	기타
2012년	93.2	5.4	-	1.4
2013년	90.4	8.4	1.2	-
2014년	92.1	7.9	-	-
2015년	84.6	14.4	-	1.0
2016년	91.4	8.6	-	-
2017년	93.1	-	3.4	3.4

< 설 연휴 공장가동 동향 >

( 단위 : % )



2. 평균 휴무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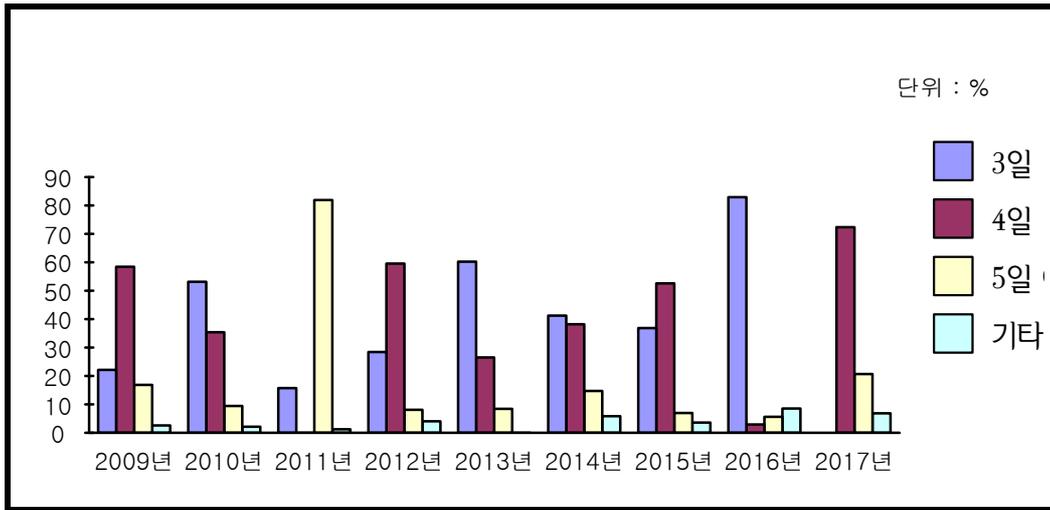
- 조사대상 업체의 평균 휴무일수는 4일 (01/27~01/30)이 7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월 31일까지 5일간 (01/27~01/31)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13.8%, 1월 26일부터 5일간 (01/26~1/30)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6.9%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 설 연휴 평균 휴무일수 >

( 단위 : % )

구 분	3일	4일	5일 이상	기타
2012년	28.4	59.5	8.1	4.1
2013년	60.2	31.3	8.5	-
2014년	41.2	38.2	14.7	5.9
2015년	36.8	52.6	7.0	3.6
2016년	82.9	2.9	5.6	8.6
2017년		72.4	20.7	6.9

<수원지역 기업체 평균 휴무일수 동향><sup>1)</sup>



### 3. 설 연휴 상여금 지급계획

- 조사대상 업체 중 설 연휴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48.3%로 조사되었으며, 상여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업체는 41.4%로 조사되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상여금 지급 규모는 일정액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7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본급의 50% 수준에서 지급한다는 응답이 21.4%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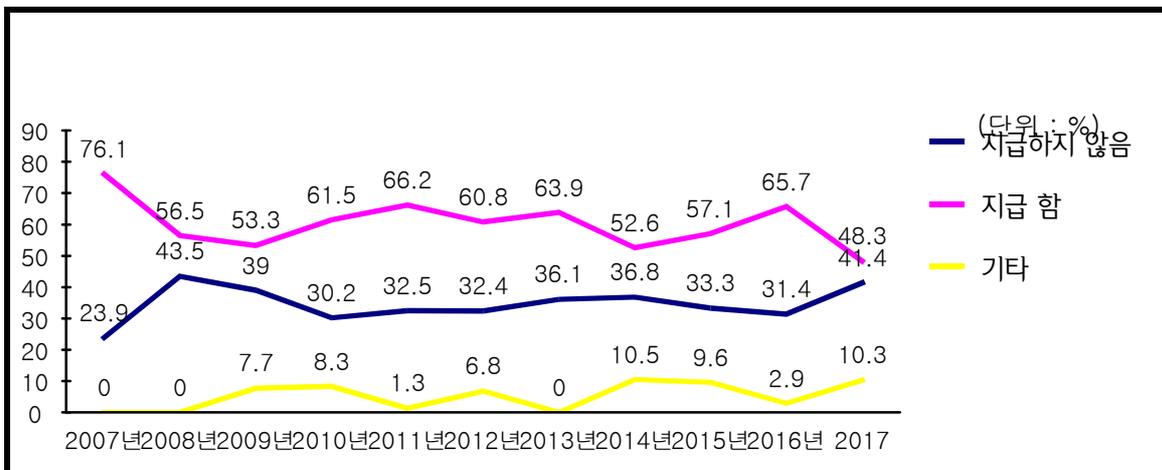
1) 연도별 설 연휴 법정공휴일

· 2007년 : 토, 일, 월    · 2008년 : 수, 목, 금    · 2009년 : 일, 월, 화    · 2010년 : 토, 일, 월    · 2011년 : 수, 목, 금  
 · 2012년 : 일, 월, 화    · 2013년 : 토, 일, 월    · 2014년 : 목, 금, 토    · 2015년 : 수, 목, 금    · 2016년 : 월, 화, 수  
 · 2017년 : 금, 토, 일, 월

< 상여금 지급계획 >

( 단위 : % )

구 분	지급계획 없음	지급 예정	기 타
2012년	32.4	60.8	6.8
2013년	36.1	63.9	-
2014년	36.8	52.6	10.5
2015년	33.3	57.1	9.6
2016년	31.4	65.7	2.9
2017년	41.4	48.3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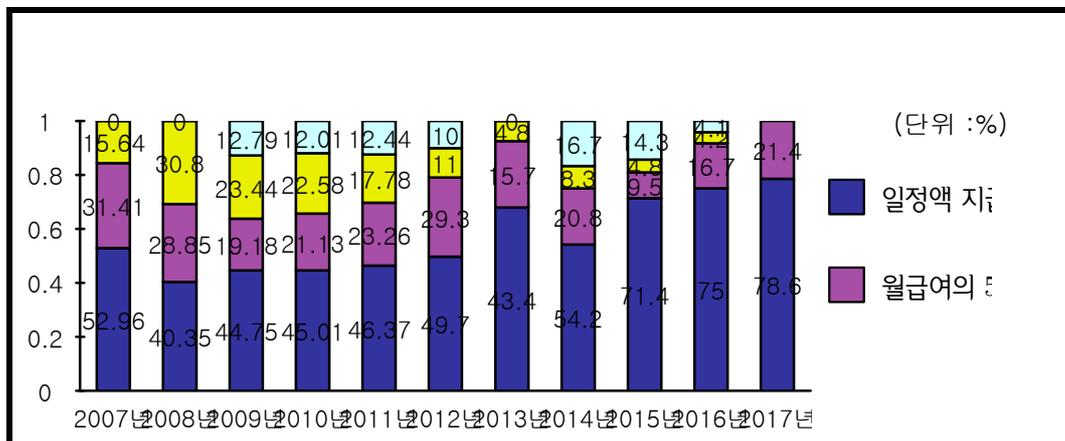
- 2017년 지급 예정 업체는 46.3%로 전년 대비 17.4%p 감소하였고,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전년 대비 10.0%p 증가하며 설 연휴 상여지급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 상여금 지급 업체는 2007년 76.1%로 가장 높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적어지면서 2017년 조사 이후 최저인 48.3%로 조사되었다.

< 상여금 지급방법 >

( 단위 : % )

구 분	일정액 지급	기본급의 50%	기본급의 100%	기 타
2009년	44.75	19.18	23.44	12.79
2010년	45.01	21.13	22.58	12.01
2011년	46.37	23.26	17.78	12.44
2012년	49.7	29.3	11	10
2013년	67.9	24.5	7.6	-
2014년	54.2	20.8	8.3	16.7
2015년	71.4	9.5	4.8	14.3
2016년	75.0	16.7	4.2	4.1
2017년	78.6	21.4	-	-

- 상여금을 일정액으로 책정하고 지급하는 비율(78.6%)이 전년 대비 3.6%p 증가하였고, 기본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4.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 75.0%의 기업이 연봉제 실시로 인해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 국내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25.0%는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해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원지역 10인상 제조업의 상여금 지급 규모를 조사한 바, 직원 평균 지급액이 100만원(세전 금액)이라는 응답이 7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은 18.8%, 기타 지급 및 연차에 따른 차등이라는 응답은 6.3%를 차지하였다.
  
- 금번 조사 결과, 수원지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별도의 기본급 대비 일정 비율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액 (100만원 이하) 수준의 상여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기 침체에 따라 생산 공장을 휴일에도 가동하는 기업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